



MG백신 접종 금지 유예, 56주 정기검사키로

- 백신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지속될 수 있도록 요청 -



본 회(회장 이홍재)는 지난 5월 1일 종계의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계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‘2019 종계농가 질병·방역 및 정부정책교육’을 진행하였다.

200여명의 종계인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종계농가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‘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’ 중 마이코플라즈마(MG·MS)에 대한 추진계획과 함께 정부의 방역시책 및 AI 대책 설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.

첫 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박제민 주무관이 ‘조류인플루엔자(AI) 방역대책’을 주제로 교육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 해외 발생사례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CCTV 의무화는 물론 케이지 기준 상향(0.075m²/수), 9단 이하 설치, 케이지간



▲ 이홍재 회장



▲ 김준걸 사무관



▲ 박제민 주무관

폭 1.2m 이상의 복도설치 등 향후 변경되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.

이날 ‘종계장·부화장 방역관리요령’의 교육 강사로 나선 농식품부 김준걸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은 정부의 방역관리요령 시행방안 검토에 따른 개정 계획에 관해 설명하였다.

김 사무관은 “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MG(마이코플라즈마)도 관리대상 난계대 전염병에 포함시켜 추백리, 가금티푸스와 같이 백신을 금지하고 정기검사 및 도태 등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었다. 하지만 생산자단체, 수의사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 금지의 불가함을 제기, 농식품부는 종계장의 감염 상황 조사 후 재검토를 했다”며 “결과적으로 종계의 MG 감염률이 25.3%까지 추정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금지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은 물론 오히려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, 예방접종 금지를 유예키로 했다. 다만 농가의 자율방역 의

식 고취를 위해 백신 지원은 중단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김 사무관은 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기검사와 감염계군에 대한 조치는 병행하면서

56주령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률이 30%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, 종계 이동제한, 종계사용 금지, 종란 부화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했다.

본회 이홍재 회장은 ‘종계의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및 대응방안’에 대해 설명했다. 이홍재 회장은 “종계품목을 계열화사업에 포함 시켜 ▲ 종란가격 현실화 ▲ 불공정사례 시정 ▲ 계열업체의 시장 지배력 분산 등을 꾀해야 한다”며 “종계 사육농가도 계열화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계약 농가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”이라고 피력했다.

이 자리에 참석한 종계인들은 그동안 지원해주던 MG백신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가 MG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백신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백신을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감염률을 높이는 꼴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. 따라서 MG백신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. **양계**